

5. 캐나다, 기업내 여성권의 향상을 위한 SRI 펀드 출시 (Responsible Investor²¹⁾, 2013. 05)

- 캐나다의 Global Women Equity Corp(GWEC)은 여성친화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Global Women Equity Fund(GWEF)를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힘
 - SRI펀드의 하나인 GWEF는 직장에서의 여성권의 운동을 장려하고 남·녀 성평등을 지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임
 - GWEC의 Alexis Klein 최고마케팅관리자(CMO)는 GWEF는 지역사회와 여성을 위한 펀드이며 직장여성의 권익향상에 관심이 적은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언급함
 - GWEC는 4,500명의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GWEF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들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기업들이 GWEF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<표 6>과 같은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함

<표 6> GWEF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

• 유엔의 여성경제력강화원칙(Women's Empowerment Principles, WEP)에 서명한 기업
• 여성임원 비율이 적어도 25%이거나 그 이상인 기업
•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기관인 CATALYST의 회원이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기업
• 유럽위원회(EC)의 기업 이사회 여성비율 제고 서약서 ²²⁾ (Women on the Board Pledge for Europe)에 서명하거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기업

- 운용수수료의 5%는 캐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임
- GWEC에 따르면, 현재 여성경제력강화원칙에 서명하였거나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코카콜라, BNP Paribas, L'Oréal 등이 GWEF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

21) - Global Women's Equity Fund Set To Launch, Advisor.ca, 2013.5.3.

- Meet the country's first SRI mutual fund aimed at investing in companies that promote women, Financial Post, 2013.5.2.

22) 이사회 여성비율을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15%, 40%까지 높이는 것이 동 서약서의 주된 내용임